

보도시점

2023. 6. 9.(금) 18:00

배포

2023. 6. 9.(금) 18:00

농어촌公,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철저

- 전국 영상회의 개최 및 시설물 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주력 -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지난 9일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 주재로 전국 93개 지사, 9개 본부, 4개 사업단이 참여하는 ‘여름철 우기 대비 대처상황 점검’ 영상회의를 실시했다.

올해 여름 ‘슈퍼 엘니뇨’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측됨에 따라 저수지, 배수장 등 주요 수리 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예방을 통해 재난·재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.

이날 회의에서는 ▲농업용 저수지와 배수시설 현황점검 ▲관리지역 내 수방자재 및 인력 배치현황 ▲호우 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실 운영 등 지역 현안과 실정에 맞는 우기 대비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특히 배수로나 배수장의 유수지에 수초퇴적물을 사전 제거로 집중호우 시 물이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,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.

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“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”며 “전국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줄 것”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수자원관리처	책임자	부 장	양희총 (061-338-5521)
	수자원기획부	담당자	과 장	이규하 (061-338-5523)